담양군, 담양시장 버스노선 경유 검토 현장점검

4월 말 개장 예정 '담양시장' 활성화·시장이용객 편의 제공
인근 도로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장날(2, 7일)에만 운영

담양군이 지난 7일 4월 말 개장 예정인 담양시장의 활성화와 시장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장 주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검토하기 위한 점검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과 의원, 공무원과 운수업체가 참석, 직접 버스에 탑승해 예상 경로를 확인하고, 정류장에서 시장까지 걸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을 통해 주정차 시스템 및 폐쇄회로(CC)TV 도입,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 도로 정비, 주차 공간 및 인도 마련, 버스 승강장·교통신호등 설치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됐다.

단, 노선 운행을 현실화하면 인근 도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버스는 장날(2, 7일)만 운행하고 시간대별, 버스의 차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운수업체와 충분한 협의와 운행 여건 마련 이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담양시장의 활성화와 어르신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20년부터 담양시장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옥상정원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으며, 4월 말 문을 열게 되면 인근 죽녹원, 국수의 거리, 담주예술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독서동아리 등록제' 운영 나섰다

활동비·모임 공간 지원 등 혜택 제공

장성군이 '독서동아리 등록제'를 운영한다.

'독서동아리 등록제'는 등록된 독서동아리에 운영 활동비와 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장성군에서 활동 △성인 7명 이상 참여 △월 1회 이상 자율적인 독서 모임 △비영리 목적 독서동아리다.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상시 등록할 수 있다.

장성군은 선정된 독서동아리에 운영 활동비 및 활동공간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문학기행,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비 지원 규모는 동아리 당 80만 원 이내다. 장성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지원 신청을 하는 동아리 대표가 사서, 교사, 독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장성=김수권 기자

나주시 "애써 키운 농산물, 유튜브로 팔아볼래요?"

관내 정보화농업인 대상 SNS 활용 판매 노하우 전수

나주시가 지역 농가에게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정보화농업인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방향 및 콘텐츠 제작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SNS 마케팅을 통해 농산품을 홍보·판매하고 있는 황룡농원 심대섭 대표가 실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공유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뉴미디어 역량 강화는 미래농업을 열어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온라인 홍보 판매 채널 다양화 등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수준별 교육과 그룹별 컨설팅으로 농업·농촌 디지털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 직무 역량 교육

화순군은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를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식과 설계도서 검토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에 따른 인허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 제공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시작

완속 충전기 21기 보급…최대 100만 원 보조금 지원

구례군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을 3월 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1기를 보급하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구례군 소재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충전기 설치 사업자)을 선택해 설치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누리집(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청 환경과(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상반기 뚝방마켓 개장…매주 토요일 열려

곡성읍 천변(읍내리 832-29)

곡성군이 '곡성 뚝방마켓'을 3월 9일 개장한다고 전했다.

곡성 뚝방마켓은 2016년 지역의 주민들을 주축으로 시작한 프리마켓으로 매주 토요일 개장하며 160회를 맞이한다. 개장 행사로는 마술 공연을 할 계획이다.

곡성천 뚝방길을 따라 벚나무를 그늘 삼아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 농수산 가공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마켓이 열리는 약 300m 뚝방 거리는 매회 평균 60팀 이상의 셀러가 참여하는 창업 인큐베이팅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보금자리다. 창작자들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 소품, 농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 직접 재배한 건강한 지역농산물 등이 인기가 높다.

2024년은 '뚝방마켓 날개를 달다'는 슬로건 아래 상반기에는 새봄이다, 사랑하기 좋은달,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기 등을 소재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 뚝방마켓의 상징이 된 마켓 거리를 휘감은 노오란 그늘막에서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뚝방마켓은 3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곡성군 곡성읍 천변(읍내리 832-29)에서 열리게 된다.

곡성=양해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